



이창원 다니엘 신부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국제협력센터장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선교사제로 있는 동안 말라리아에 4번 걸려 고생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어떻게 말라리아에 4번이나 걸릴 수 있냐고 혀를 차시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흔하게 걸리는 질병입니다. 말라리아에 걸리면 빠른 검사가 중요합니다. 양성으로 나올 때는 3일 정도 약을 먹으면 다시 괜찮아지지만,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약을 먹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병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전 세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매년 약 3억 명의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걸려 고생하고 있으며,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년 목숨을 잃습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5세 미만의 어린이들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으로 많은 국가들이 백신 개발에 앞다투어 뛰어들었습니다. 아직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감사하게도 현재 여러 백신들이 개발되고 있고 사람들은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세상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고민을 하고 있지만, 말라리아로 고통받아온 지구 반대편의 현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는 이곳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 ‘우리도 힘든데 누가 해외원조를 위해 기부할까?’ 생각했었는데 끊임없이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더 많은 모금액이 걷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 진행 중인 ‘가나의 카나수아 지역 아이들 340명에게 교실을 지어주고 영양식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는 역대 가장 많은 모금액이 모였습니다. ‘너희 중 가장 작은 이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행복해집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더러운 영에 들린 이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마르 1,24)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 세상 도처에 가난한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런 은총도 희망도 생명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고 계신 예수님도,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예수님도 당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계시는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우리의 예수님으로 알아보고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제주도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마르 1,24)**

끝이 보이지 않는 수평선 너머일지라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해와 달과 바람 그리고 별자리가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라도 갈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별남 레오폴도 | 가톨릭사진가회